

본문말씀

창세기 37장~40장

Since Oct. 10, 2011
예외 안인 장로회
하나님의 사랑교회

제 37 장

요셉과 형제들

-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
-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
- 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
- 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
-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
-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
-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
-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
-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
-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
-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
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
- 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

-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
-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
- 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
- 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
- 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
-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
-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
- 20 자,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
-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
-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
-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
-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
-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

- 유함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
-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
-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
-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
- 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
- 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
-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
-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
- 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
-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
- 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
-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

제 38 장

유다와 다말

- 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

히라와 가까이 하니라

- 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
-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
- 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
- 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
- 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
- 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
-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
- 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
- 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
- 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
- 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
- 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딘나에 올라왔다 한지라
- 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헹싸고 딘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

- 15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
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
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
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
17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
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
18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
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
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
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
19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
입으니라
20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
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
여인을 찾지 못한지라
21 그가 그 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1)창녀가
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1)창녀가 없느니라
22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곳
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
23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
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
못하였느니라
24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
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
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
25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
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
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
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
그를 내 아들 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
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

- 27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
- 28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
- 29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2)베레스라 불렀고
- 30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

제 39 장

요셉과 보디발의 아내

-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
-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
-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
-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
-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
-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
- 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
-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

-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
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
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
- 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
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
-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
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
-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
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
-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
나감을 보고
-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
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
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
질렀더니
-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
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
-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
-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
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
-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
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
-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
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
-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
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
-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
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
-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
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
-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

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
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

제 40 장

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

- 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
-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
- 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
- 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
- 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
- 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
- 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
-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
- 9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
-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
-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
-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
-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

-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
-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
-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
-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
- 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
-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
-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
-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
-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
-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
-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